



제목	페르시아 제국시대에 구약 성서의 오경(五經)은 신권정치의 관변 경전인가?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종교학회
발행일	2012. 9. 15.
저자	김은규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169-194
ISBN 또는 ISSN	1226-3516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오경 안에 지배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접근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제국과 총독, 그리고 신권권력이 오경을 최종 완성하는 데에 어떻게 지배이념들을 반영시켰는가를 다루고 있다.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책이라고는 하지만, 세속권력과 제사장권력이 합쳐진 신권정치의 입김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칙령을 통해 유대인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 그러나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유대인들 스스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공동체의 여러 그룹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자 했다. 페르시아 당국은 성전 재건을 둘러싼 포로 공동체 그룹들의 충성도를 저울질하다가 사독계 제사장과 신학자들을 지원했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최종 편집된 구약성서의 오경이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독계 제사장들과 신학자들의 친페르시아적 태도와 그로 인한 보수화는 팔레스틴에 남아있던 팔레스틴 공동체의 예언자들의 예언운동을 약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오경의 정경화 작업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친페르시아적이고 신권정치적인 경향의 에스라와 사독계 제사장으로 인해 굴절된 부분이 있는 반면, 평신도 신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율법들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